

< 안철수의원 긴급기자회견문 >

청와대가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헌법파괴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을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총리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알뜰한 술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공작이나 작전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국정붕괴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습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깊이 절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가횡령 음모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 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가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위해 온갖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신께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께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께 더 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2016.11.2. 안철수)